



페르시아만전쟁 발발에 따른 석유수급대책

정부는 페르시아만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지난 1월 18일부터 승용차 10부제 운행, TV방영시간 단축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1단계 에너지소비절약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페르시아만전쟁이 발발한 지난 1월 17일 盧泰愚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소집한데 이어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고 페르시아만전쟁에 따른 외교·안보·경제적 파급영향을 점검하고 비상대응책을 협의했다.

이날 확정된 1월 18일부터의 1단계에너지절약대책 시행에 따라 자가용승용차·통근·관광·전세버스는 날짜와 차량번호의 끝자리수가 같은 경우 운행이 금지되며, 2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월 22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1월 17일 밤부터 빌딩옥상, 벽면등에 설치된 대형 네온사인 및 언론사 전광판의 사용도 전면 금지시키고 전국의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조정명령을 발동, 유조차량에 의한 등유 대량판매와 신규 국제병커링계약을 금지시켰다.

한편 정부는 페르시아만전쟁의 전개를 3개 시나리오로 가상,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경제기획원이 지난 1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盧대통령에게 보고한 「페르시아만전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전쟁발발 즉시 조치사항 ▲시나리오 I (10월 이내 다국적군 승리) ▲시나리오 II (1개월 이내 다국적군 승리) ▲시나리오 III (전쟁 3개월이상 장기화) 등으로 나누어 차질없이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나리오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즉시대응책

중동지역으로부터 매일 국내수요량의 57%에 해당하는 54만7천배럴의 원유도입이 중단될 것이나 정부비축량 3천8백만배럴과 정유사재고 1천4백만배럴등으로

수입차질분을 충당한다. 이와 함께 1단계 석유소비절약 대책으로 ▲자가용승용차 및 전세·관광·자가용버스의 10부제 운행 ▲TV방영시간 하루 2시간 단축 ▲대형네온사인사용 전면금지 ▲대형보일러의 경유공급 ▲非석유발전설비 최대한 가동등을 추진한다.

또 석유류가격을 가급적 빨리 인상, 수급안정과 소비 절약을 촉진한다.

• 시나리오 I

전쟁이 10일 정도의 초단기전으로 끝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금년 경제운용계획시 국제유가를 배럴당 25달러로 전제한만큼 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전쟁후의 고유가현상에 대비, 국내유가와 에너지관련 요금체계는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 시나리오 II

전쟁이 1개월 정도 단기전으로 끝나는 경우로 정책적 비중이 가장 크다. 국제유가는 전쟁기간중에 배럴당 40~50달러에 이르게 되고 유전시설복구기간에는 30~35달러로, 전쟁복구후에는 2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급대책으로 자가용·홀짝수제운행등을 시행한다. 또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해외여행 제한 ▲개인송금 제한 ▲수입자제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시나리오 III

전쟁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로 1, 2차 석유파동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전쟁중에는 60~70달러, 복구중에는 40~50달러에 이르게 된다. 국내유가도 연간 원유도입단가가 평균 40달러에 달하게 되어 약 1백%의 인상요인이 생기게 된다.

대응책으로는 휘발유쿠폰제, 등유배급제, 제한송전, 불요불급소비제의 수입제한등을 실시할 계획이다.♣